

과기정통부, 세계적 인공지능 기업의 사이버보안 사업(프로젝트) 관련, 연속(릴레이) 현안 점검 회의 개최

- 기업 정보보호 책임자, 통신사 및 주요 이음터(플랫폼) 사업자에 기술 동향 주시 및 보안 강화 노력 당부, 인공지능 보안 전문가와 국내 영향 등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엔트로픽 및 오픈에이아이가 자사의 최신 인공지능 모델을 사이버보안에 활용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출범한 것과 관련하여 긴급 현안 점검 회의 등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엔트로픽과 오픈에이아이는 고성능 보안 역량을 보유한 자사의 최신 인공지능 모델을 협력사(파트너사)에 제공하는 사업(프로젝트)을 가동하여 국제 사이버보안 분야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 **【엔트로픽】** 미토스(Mythos) 기반 ‘Project Glasswing’ 사업(프로젝트)(’26.4),
【오픈AI】 GPT-5.3-Codex 기반 ‘Trusted Access for Cyber’ 사업(프로젝트)(26.2.)

이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는 민·관·군 주관 부처에 긴급 대응을 주문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각 기업 정보 보호 최고책임자(CISO)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안 위협에 주의하고 각사별로 긴급 보안점검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이 공격 발생 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상황을 공유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류제명 제2차관 주재로 ’26. 4. 14.(화) 14시부터 통신 3사 및 주요 이음터 사(플랫폼 사)(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쿠팡 등) 정보 보호 최고책임자와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인공지능 고도화에 대한 사이버보안 대비 태세 점검과 보안 체계 변화 동향을 예의주시하도록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26. 4. 14.(화) 17시부터 국내 인공지능 보안 전문가와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동 사업(프로젝트)과 인공지능 보안 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배경훈 부총리는 “미토스 등 고성능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보안 서비스의 등장은 보안 수준의 획기적 향상의 기회가 됨과 동시에 그것이 악용되면 큰 위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라며, “우리나라의 기업, 기반 시설 등이 위와 같은 위협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그와 동시에 사이버보안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할 것” 이라며 “민·관이 합동으로 우리나라의 사이버보안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자” 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책임자
	정보보호산업과	담당자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 삶을 채우는 디지털·AI